

셀트리온, 바이오시밀러 10대뉴스 선정

셀트리온(대표 서정진)은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로 허가받은 바이오시밀러 <램시마>가 미국 바이오 분야 전문 온라인 매체인 바이오월드에서 선정한 <2012 10대 뉴스>에 선정됐다고 1월3일 발표했다.



램시마는 항체 신약 <레미케이드>를 본 떠 만든 바이오복제약이며, 바이오월드는 램시마가 세계 처음 상용화된 항체 바이오시밀러라며 주요 뉴스로 선정했다고 셀트리온은 전했다.

바이오월드는 이밖에도 대형 제약기업 의약품 특허 절벽(만료) 도래, 먹는 C형 간염치료제 승인, 새 비만치료제 허가, 줄기세포 연구 등 재생의학 연구 노벨상 수상, 유전자 치료제 첫 허가 등을 2012년 의약 분야의 주요 뉴스로 뽑았다.

바이오월드는 미디어기업 톰슨미디어그룹 계열의 온라인 매체로, 질병치료에 활용되는 의약바이오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다.

<화학저널 2013/01/04>